

무한을 향한 존재의 울림

-박광진 전-

윤 난 지

과장과 표현의 시기에 절제와 침묵을 고수하는 작가를 만난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간결한 형태와 색채 그리고 미묘한 세부로 이루어진 박광진의 화면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그의 작품은 특정 대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모든 사물의 존재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존재의 방식은 「울림」과 같은 것이다. 모든 사물은 완결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상호침투하는 드러남의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의 모습을 내면의 외연화, 그리고 외면의 내부로의 침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가 초기부터 광선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이같은 존재의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광선이라는 실체 속에서 나타나고 소멸하면서 존재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하였다. 서구 작가들에 있어 (가령 인상주의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광선이 사물의 외면에 반사된 물리적인 실체라면 이 작가에게 있어서 광선은 정신의 울림을 표상하는 일종의 상징이다. 그는 물질적인 실체의 가득참을 인지시키기보다 허

공을 꿰뚫는 빛을 통하여 의식을 투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물질이 비워진 곳에서 정신이 개입할 여지가 시작된다는, 또는 자신을 비움으로써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동양사상의 맥락에 속한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 고정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외부로 향하여 움직여가는 유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형태들은 이러한 존재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울려 퍼지는 형태의 반영 속에 정신이 실려 공명하고 있



19920805, 목판화, 70x110, 1992

는 것이다.

최근작의 주제인 「음양」의 원리도 결국 「울림」의 한 양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음과 양은 허와 실, 침묵과 언어, 물질과 정신, 밝음과 어둠 등 대비적인 것들의 상생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대비가 대립에 그치지 않고 상호보충함으로써 총체성을 성취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존재개념인 것이다. 이같이 음양의 원리는 대비와 보충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정지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과정으로서의 개념이라


는 점에서 일종의 「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박광진은 태극이나 하늘과 땅 등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뿐 아니라 흑과 백, 직선과 곡선, 오목과 볼록, 수평과 수직, 명확함과 부드러움 등 조형적인 속성들의 상생을 통해서 음양의 원리를 은유하고 있다. 이들 조형요소들은 화면의 좌우, 상하, 그리고 형태의 안과 밖에서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의 원리는 그의 제작기법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 치밀한 수공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즉흥과 우연의 미학을 버리지 않는 작업과정 속에서 장인기질과 예술가적 영감이 결합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다작을 목표로 만들어진 판화와는 구분된다. 미리 결정된 제작의 결과를 위하여 만들어진 목판들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일반적인 목판화와는 달리 그의 작품은 같은 목판을 매번 새로 새겨서 계속 찍어가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새김과 찍음을 반복하는 그의 작업과정 속에

서 원판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므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는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 어느 정도 계획된 의도는 제작과정 중에 일관되게 작용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판과 작품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 투명하면서도 공간감을 주는 특유의 색채 변이는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한 물감의 중첩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는 특히 형태의 윤곽선 부근의 미묘한 효과를 위해서 목판에 물감을 뿌려서 직접 찍거나 전사지를 대고 즉흥적이면서도 제어된 행위의 궤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작품이 없는 판화, 즉 판화기법에 의한 유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거친 형태들은 무한한 공간 속으로 울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는 원형의 형상은 정소리의 반향을, 작은 덩불들이 자라고 있는 사막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화면은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화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연상을 넘어선 보편적인 존재양태의 등가물이다. 그의 작품 앞에 선 관람자는 무한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게 된다.

직설법 보다는 은유의 방법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박광진의 작품에서 우리는 표적없이 떠도는 세기말 미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의 작품은 70년대의 메마른 개념미술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술에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 53년생 ·

·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문학박사)

· 현 이화여대 교수